



박 희 권 상무·편집위원장  
(주)하림

## 청년의 힘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 한 장 남은 달력이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빨리 세우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불확실한 시장 조건으로 그 누구도 선명하게 내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육계산업의 금년 실적을 보면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다. 닭고기 소비량은 타산업의 신장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국제 석유가와 옥수수, 대두박 등의 곡물가 또한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인상되어 닭고기 생산원가 30%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업계 전체의 실적은 수 백억원의 적자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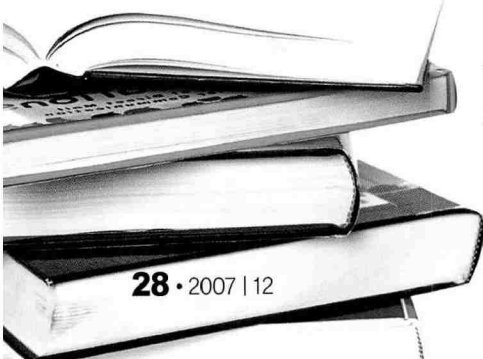
금년은 전 세계적으로 육계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등도 그렇고,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다는 아프리카의 남아공도 연간 7~8%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지켜보았다. 올해 유일하게 불황에 허덕이는 나라는 곧 우리나라 한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첫째,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생계시세로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발생된 적자이고, 둘째는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곡물가, 물류비, 유가의 인상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제품가격 인상으로 흡수해야 하는데 이 기능이 없는 우리 육계 시장에서 누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이런 1년 이상의 장기 불황 속에서 적자를 흑자 상황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업계가 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나를 생각해보자. 남들이 보면 바보들의 집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우리 육계 계열화 사업이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니 나이로 따지면 20대 청년의 나이가 되었다.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역량이 있는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아적 행동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정부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과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하는 근거없는 낙관적 전망 등이 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서 언제든지 이 적자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확신 같은 것 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나만은 제외하고, 다른 업체들이 솔선수범하여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업계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는 청년의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우선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협회에 힘을 실어 주어 협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미국 등의 육계산업 역사를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정부의 통제를 받았지만, 어느 정도 성숙되면서 주요 업체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의 발전과 업계의 발전을 위한 방법이 어느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한 다음에 즉시 실천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발전된 모습이 되었다.

현재도 계육산업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계육 협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그 예로 미국도 1960년대 초반까지는 생계시세가 시장가격의 기준이었다. 그러다 65년경부터 계열화 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생계시세 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생산원가를 기준해서 닭고기의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20살이 넘은 한국 육계 계열화 산업도 변신을 시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도계육을 기준으로 한 닭고기 시장 가격을 적용하도록 힘을 모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업계의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만 고민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자. 객관적인 제3의 시각으로 해결책이 제시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자.

양축농가, 농업·축산·유통 관련 공무원, 교수 및 학자, 계열업체, 소비자 모임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한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는 공청회를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정해진 대책은 즉시 실행하도록 하자.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정당한 압력도 행사하자. 육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가 국내에도 적용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제도가 아직도 많이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2008년은 올해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의 힘과 패기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간다면 호황으로 국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수급을 위해서 GP, PS 쿼터와 입식수수를 조정하고, 닭고기 가격이 최소한 원가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유통되도록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이 일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실행해야 할 근본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